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사목회장	명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부활 제 5 주일 5월 10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98(97), 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대영광송>

[제 1독서] 사도 6, 1-7

[화 답 송] 시편 33(32), 1-2, 4-5, 18-19(◎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 2독서] 1베드 2, 4-9

[복음환호송] 요한 14, 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요한 14, 1-12

[영성체송] 요한 15, 1, 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랜 기간 사목활동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성당 정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어서 그것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십자고상과 성경, 예수성심상, 성모상, 묵주, 레지오 경본 두 권, 초 몇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어떤 신자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물을 모두 다 성당 문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져온 성물은 새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썼던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자매님의 세례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을 접기로 결심하였을까요?

20세기 들어 발전하기 시작한 ‘인지 심리학’ 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인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익이고 또 하나는 쾌락(행복)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고 쾌락(행복)을 얻기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더 강력한 동인은 쾌락(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경우에 쾌락(행복)을 느낄까요?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반대의 상황,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고 그들이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쾌함을 느끼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고 그 이유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렇게 차별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불평을 했을까요! 나라도 그러한 차별 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많은 냉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냉담한 이유는 우리 천주교회의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을 믿기가 싫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교우 간에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고 느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까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불평을 하게 되고, 즉,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냉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요즈음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천지 안에 천주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천주교는 전례가 재미도 없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도 않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차별하고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무시하니 그런 사이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창녀와도 어울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세리 자캐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간에 입만 열면 좋은 말을 한다면 불평하는 사람도, 냉담하는 사람도 없는 사랑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규철 베네딕토 신부
춘천교구 철원본당 주임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5/11(월)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임스텔라 가정	임루시아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전스텔라/황호규	전데레사(윤자)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5/12(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5/13(수)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5/14(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심아브라함(재구)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5/15(금)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브루스아론조/발바라	전데레사(윤자)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5/16(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이마리아(호순)	오클랜드반		연 안마리아	박헬레나
	연 이마리아(호순)	임클라라(은석)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오연식	전데레사(윤자)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2,215
- < 교무금 > \$5,150
 임윤택(5) 김원덕(5) 김영길(3-4) 김영자(5-7) 황혜정(1-6)
 육승주(5) 목지홍(3-7) 박영실(5-6) 이용길(3) 유인웅(4-6)
 임석호(2-3) 윤순의(3-5) 이정연(5) 김세록(4-5) 허순구(7-12)
 명광식(1-6) 조진행(5) 이범준(5)
- < 성소후원금 > \$100
 임윤택(5) 박영실(5-6) 조진행(5-6)
- < Bishop's Appeal > \$250
 김영자(1-12) 박영실(5-6) 이용길(3-5) 조진행(5-6)
- < 감사헌금 >
 김병희
- < 빈첸시오 노숙자를 위한 기부금 > \$1,100
 김영자, 김병희, 유인웅, 이육경, 이범준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종광 사도요한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링, 적금</p> <p>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p> <p>☎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p> <p>☎(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p> <p>☎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p> <p>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p> <p>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p> <p>(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